# 대중불교 · 현대적포교 원력 담은 범종불사

## 광명사, 12월 15일 학술세미나 개최
## '한국 범종의 전통과 그 새로운 도상 전개'

### 미륵대범종 불사 방향 제언
### 종각·신응수, 범종·원천수
### 상월대조사 이념 받든 불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광명사가 12월 15일 경내 지관전에서 '한국 범종의 전통과 그 새로운 도상 전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12월 15일 경내 지관전에서 '한국 범종의 전통과 그 새로운 도상 전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는 범종의 역사적 변천과 도상적 특징을 알아보고 앞으로 진행할 광명사 미륵대범종과 종각 불사에 대한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지 춘광 스님을 비롯해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한국 종의 전통과 그 역사적 변천(이기선 前 범종학회 회장) △한국 범종의 양식과 도상적 특징(정우택 동국대 명예교수) △광명사 범종 주조에 대한 고찰( 원천수 성종사 소장) △광명사 범종각 건축의 새로운 시도(신응수 대목장-무형문화재 제74호) △천태종 미륵대범종 · 종각 불사의 의의(이봉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순으로 발표됐다.

발표자들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무엇보다 광명사가 불사할 범종 및 종각의 제작 방향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미륵대범종' 이란 명칭에 담긴 '대중불교' 의 뜻을 전달했다.

이봉춘 교수는 "천태종 중창 이전부터 새불교운동을 전개해온 상월대조사의 교화이념과 방향은 종단의 3대 지표로 정립된다. 그 가운데 '대중불교' 에는 특히 미륵신앙에서 중시하는 십선계(十善戒)가 포함된다. 천태종에서 출가 및 재가가 이 계를 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대조사의 교화이념을 받들어 수행하는 일이다"며 광명사 미륵대범종이 대조사의 대중불교 이념의 수행(遂行)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미륵대범종은 주지 춘광 스님의 수행정진과 결심에서 나온 것이다. 종단 안팎으로 미륵불 봉안은 적지 않지만 대범종의 경우는 예가 없었다. 인간 고액(苦厄)으로부터 저마다의 신행을 통해 청정과 해탈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각은 종면 3칸, 측면3칸으로 건축면적 18.77평, 주심포양식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불사한다.

종각 불사를 맡게 된 신응수 대목장은 종각에 대해 "주심포집은 다포집에 비해 포의 양식이 간결하고 배흘림기둥 형식으로 독특하고 아름답다"며 "광명사 종각은 최고의 건축미를 빛내고 천년을 갈 수 있는 문화재급 건축물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범종 불사를 맡게 된 원천수 소장은 "광명사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 공법으로 진행될 것이다"며 "밀랍주조는 문양이 섬세하고 표면이 매끄럽고 종 울림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광명사는 '전통' 과 '현대의 조화' 로 새롭게 범종을 조성하고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불사' 임을 강조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으로 21세기를 대표하는 새 범종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불사이다. 범종의 의미와 양식을 바르게 계승하고 신앙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 문화적 자긍심을 미래로 전할 수 있는 범종을 주조하고 종각을 건립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탁한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불국토를 열어주는 미륵부처님의 위신력을 범종소리에 실어 조석으로 예경하고 시대의 모든 고난이 극복되길 기원할 것"을 밝혔다.

## 벽선암, 동지팥죽나누기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이 12월 11일 울산 호계역 광장에서 '제9회 문화와 함께하는 동지팥죽나누기' 를 진행했다.

벽선암은 매년 동지를 맞아 새해의 행복과 소원을 발원하며 지역민에게 문화행사를 열어 팥죽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하는 팥죽 3000그릇을 전달했다.

벽선암 주지 혜진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지팥죽은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광명을 맞는다는 뜻이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팥죽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12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제9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포교원력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학술문화상은 오경후 동국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봉사실천상은 동국대학교 의료원(단체)이 받았다. 수상자들은 20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3명이 선발됐으며 상금 1000만 원과 감사패를 받았다.

아울러 통도사는 이정숙 불자에게 감사패와 종립학교인 해동고등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각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정숙 불자는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과 울산시립노인요양원에 20여 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후원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널리 선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혜원정사, 고산 스님 추모전시관 마련

### '지리산 무쇠소 추모전시관' 개관식 개최


부산 혜원정사가 12월 16일 '지리산 무쇠소 추모 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3일 입적한 고산당 혜원 대종사를 추모하는 전시관이 마련됐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2월 16일 '지리산 무쇠소 추모 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리산 무쇠소' 는 고산당 혜원 대종사의 별칭으로, 한 번 옳다고 믿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는 단호함과 강직한 수행정신의 사표(師表)를 상징한다.

방장실을 개조한 '지리산 무쇠소 추모 전시관' 은 스님의 무쇠소와 같았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보는 큰스님 △큰스님과 함께하는 호신불 △경전공부와 서화활동 △점안과 복장 △불자와 죽비 △육환장과 주장자 △다도와 포행 △청빈을 실천하신 큰스님 △큰스님 완상품 등의 주제별로 구성됐다. 특히 전시관 중간에 위치한 금색 사리탑에는 고산 스님의 치아에서 나온 사리 한 과를 봉안했다. 또한 저서, 장삼, 승려증, 경전, 자필 법문 등 다양한 유품이 전시됐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큰스님의 유품을 마주하고 있으니 생전 청빈하시고 강직하셨던 그 성품과 가르침이 다시 생각난다"며 "쌍계사에서는 아직 큰스님의 유품을 정리하지 않았는데 곧 해야 할 과제이고 그 수행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전시관을 통해 큰스님의 온기와 따뜻한 자비심을 느낄 수 있다"며 "이곳에 전시된 스님의 유품들은 생전에 쓰시던 물건들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이 · 취임식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이 12월 12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제11 · 12대 단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이임사 및 차기단장 인사, 명패 전달, 그리고 동국대 학생 1명과 금정중 학생 4명에게 장학금 전달과 금정노인요양원에 후원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송재린 제12대 부산지역단장은 "10대 · 11대 정분남 단장님과 임원에게 깊은 감사를 올린다"며 "언제나 하나 된 마음으로 전국 최고의 부산지역단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분남 단장은 "새로이 시작하는 12대 단장인 법해 송재린 단장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협조와 사랑으로 단장 소임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강좌 개최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가 12월16일 부산광역시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생명존중 및 환경지키기 강좌' 를 개최했다.

종교인들이 함께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종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는 1부 개회를 알리며 기도와 내빈소개, 인사말씀 등이 이어졌으며 2부 강연은 △기후위기 대응과 종교의 역할(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 네트워크 사무총장) △장산 레이더 설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손웅희 장산마을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실상문학상 대상 조헌호, 손순이

### 12월 16일 영광도서 8층 시상식 개최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혜총)가 12월 16일 영광도서 8층에서 '제24회 실상문학상 시상식' 을 개최했다.

대상은 조헌호, 손순이 시인이 공동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김만옥, 안문자, 최인숙 시인이 수상했다.

조헌호 시인은 2005년 계간 문예시대로 등단했으며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시집 〈산사의 밤〉 등을 출간했다. 손순이 시인은 1994년에 등단해 〈자기를 넘어서〉 외 시집 13권을 출판했다. 이외 작품상은 이영애 시인의 '타인의 시간' 과 지춘화 시조 시인의 '자화상' , 그리고 양기수필가의 '나를 보다' 가 수상했다. 신인상 시조부문은 왕선자 시인, 홍종원 회원이 받았으며 신인상 시 부문은 윤상철 회원이 수상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곡산 대광사 2022년 신입생 모집

명상 상담 대학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 강의내용 :

| 과 목 | 강의내용 |
|---|---|
| 불 교 |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양사상, 유식과명상, 천태소지관 |
| 명 상 | 위빠 사나(알아차림, 자기집중, 호흡) → 이론, 실기 병행 및 무념 치유(특강) |
| 상 담 |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 및 실체 |

▣ 강의시간 : 기본과정 [야간] 매주(화) 19:00 ~ 22:00
심화과정 [야간] 매주(수) 19:00 ~ 22:00
전문과정 [야간] 매주(목) 19:00 ~ 22:00

▣ 수 료 후 특 전 : 명상 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특 강 : 매주(화) 테라피요가 명상

▣ 대 상 자 : 명상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 접수방법 : 대광사 종무소 방문 또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인터넷 입학 신청

▣ 문의전화 : 031)715-3000

▣ 수 강 료 : 한 학기당 170,000 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031-715-3000 / 3404